



수지초 신문

꿈을 향해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삶 미래high+
수지교육

입 안에서 봄이 팡팡! 세계의 봄 맛보기

봄이 오면 겨울동안 움츠렸던 몸이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식욕을 돋굽니다. 세계 여러나라 친구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봄을 맞이할까요?

오늘은 한국 VS 세계 봄 음식 대결로 각 나라의 대표 봄 맛이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꽃을 구워먹는다구요?” - 진달래 화전



▲진달래 화전
울가에서 꽃을 따 전을 부쳐 먹으면서 화전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진달래 화전을 먹어 본 사람들에게 따르면, 쫄깃한 찹쌀 반죽과 달콤 씹사름한 진달래꽃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한국의 진달래 화전입니다. 진달래 화전은 찹쌀반죽 위에 깨끗하게 손질한 진달래 꽃을 올려 기름에 지져 먹는 떡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봄이 되면 개

[일본] “꽃 말고 이런 것도 먹는다고?” - 사쿠라 모찌

두 번째 주자, 일본의 사쿠라 모찌입니다. 사쿠라 모찌는 일본에서 3~4월에만 먹을 수 있는 간식입니다. 소금에 절인 벚꽃 잎으로 일본의 전통 찹쌀떡(모찌)를 감싸서 먹습니다. 모찌 안



▲사쿠라 모찌

에는 팔이 들어있는데 벚꽃 잎과 같이 먹으면 속은 달달하고, 겉은 짭짤해서 단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쿠라 모찌는 도쿄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이후 일본 곳곳으로 퍼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자처럼 생긴 계란찜?” - 프리타타



▲프리타타
표적인 아침 식사 메뉴입니다. 고대 로마시대부터 달걀을 즐겨먹으면서 집에 남아 있는 식재료를 모두 넣어 만드는 식문

마지막 주자는 이탈리아의 프리타타입니다. 생긴 건 계란찜 같이 생겼지만 봄철 식재료인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와 크림, 치즈, 파스타를 계란물에 넣고 구워낸 이탈리아의 대

화로 발전해 왔다고 하는데요, 식재료가 위에 보이도록 조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리타타의 겉은 구워 단단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것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VS세계 봄 대표 음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먹고 싶은 봄 음식은 어느 나라 음식인가요? 나라마다 음식의 모양과 맛은 다르지만 건강한 봄을 맞이하고 싶다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집 식탁에는 어떤 봄이 올라와 있는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봄, 건강한 제철 음식 먹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6학년 안은서 기자



수지초등학교, 시간 속에서 성장하다

여러분은 수지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수지초의 사실들도 있습니다.

<수지초는 1932년에 개교하였다?> 네, 맞습니다. 1932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 시기는 일제강점기 시대였는데 이봉창,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 독립운동을 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오래된 학교였다니 정말 놀랍죠? 수지초등학교는 1932년에 개교하여 지역발전과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체험중심의 활기차고 전통이 깊은 학교입니다, 그런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수지초 초대(제1대) 교장 선생님은 한국인이다?> 아닙니다.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놀랍게도 우리 학교 초대 교장 선생님은 일본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지배를 받는 시기였고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이 교장선생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수지초 학생 수는 1500명이 넘는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이 많은건 알고 계셨겠지만, 이렇게나 많을 것이라 예상하셨나요? 현재 우리 학교 학생 수는 1700명이 넘고, 2024년 기준으로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수 28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지초등학교는 불과 10년 전 2016년에는 졸업생이 8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대형학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학교는 사랑, 성실, 건강의 교훈을 바탕으로, 작은 학교였던 시절과 현재의 모습은 다르지만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배움터로 남을 것입니다.

4학년 홍연우 기자



[인터뷰 기사] 새 학기, 교장선생님께 듣는 수지초 이야기

한성은 교장 선생님 인터뷰

새 학기를 맞아 우리 학교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교장선생님을 직접 뵙고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정유나 기자: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성은 교장선생님: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세 가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생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잘 자라고, 꿈을 키우도록 돕는 분들입니다. 선생님들께 인사를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학교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둘째, 학교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실, 운동장, 복도, 급식실까지, 이곳은 여러분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학교를 깨끗하게 쓰고, 규칙을 지키는 것은 학교를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시작점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위험한 장난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 몸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하고 할 때나 학교생활을 할 때 친구들과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하길 바랍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배우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유나 기자: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한성은 교장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아침 수지초 등굣길을 둘러보고 또 학교 정문에서 아침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나는 학생들이 밝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 선생님은 수지초등학교의 가장 좋은 점이자 자랑거리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밝게 인사를 잘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나 기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성은 교장선생님: 우리 수지초 학생들은 꿈 그릇을 크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혹시 '코이'라는 물고기를 알고 있나요? '코이'는 집안의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5~8cm 피라미로 자라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20cm까지 자라고, 큰 강물에서는 90~1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과 마음에 품은 뜻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꿈 그릇을 만들기 위해 책도 많이 읽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정유나 기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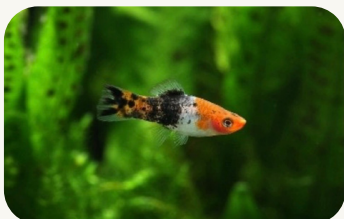
한성은 교장선생님: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정유나 기자: 앞으로 우리학교가 어떤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나요?

한성은 교장선생님: 2026년 우리 수지초등학교 교육목표는 더불어 함께 성장하며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학생 간의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움에 충실하고, 선생님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며, 학부모님은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의 성장을 위하여 학교와 소통하여, 학생은 오고 싶은 학교, 학부모님은 보내고 싶은 행복한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유나 기자: 네, 인터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더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과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작은 어항 속에서 자란 코이(약 5cm)



▲ 수족관이나 작은 연못에서 자란 코이(약 20cm)



▲ 강이나 하천에서 자란 코이(약 120cm)

5학년 정유나 기자

세계 여러 나라의 귀신

우리나라에 처녀 귀신과 구미호가 있다면 다른 나라에는 어떠한 신기한 귀신이 살고 있을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오싹한 귀신을 소개합니다.

첫째, 멕시코의 울보 귀신 '라 요로나'



▲ 라 요로나

‘라 요로나’의 특징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밤마다 강가에서 “내 아이들은 어디 있니?”라며 슬프게 울고 다녀요. 왜 이런 귀신이 생겼냐면 아이들에게 “밤늦게 강가에 놀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일본의 우산 귀신 '카사오바케'

‘카사오바케’ 특징은 다리는 하나, 눈도 하나, 그리고 긴 혀를 내밀고 있는 오래된 우산 모양의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귀신이 생겼냐면, 일본에는 ‘츠클모가미’라는 믿음이 있는데 “물건을 소중히 100년 쓰자”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 카사오바케

셋째, 스코트랜드의 물말귀신 '켈피'

‘켈피’의 특징은 사람이 자신의 등을 타면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드는 무서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귀신이 생겼냐면, 스코틀랜드에는 호수가 많아서 물과 관련된 옛날 이야기나 전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 켈피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나무 위 거인 '카프레'



▲ 카프레

‘카프레’ 특징은 온몸이 털로 감싸져 있고, 나무 위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귀신이에요. 왜 이런 귀신이 생겼냐면, 큰 덩치의 무서운 인상이어도 개구쟁이 친구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문화마다 서로 다른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귀신을 알고 있나요?

6학년 김지원 기자

학교에서 스마트폰, 규칙대로 써야 할까? 자유롭게 써도 될까?

교내 자유시간 스마트폰 사용 두고 찬반 논란... "건강한 합의점 찾아야"

요즘 초등학교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에서 학칙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 1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학교 학칙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과연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지, 혹은 그마저도 규칙대로 사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시간에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사회성을 유지해주고 학생의 안전과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친구, 가족과의 연락을 하면서 학생들의 사회성을 유지하며 서로간의 친분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연락을 하거나 위급 상황일 때에도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거나 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에서는 많은 과목과 수업에 자료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 이럴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 웹서핑을 하면 학교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빠르게 쓸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을 시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반면, 반대측은 교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뇌의 집중 기능이 저하되어 수업시간에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수면 부족 및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학교에서라도 과다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소란스러워진 분위기에서 수업을 시작했을 때, 수업의 흐름을 방해하고 선생님의 교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게임이나 교육과 아예 반대되는 활동들을 하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될 뿐더러, 교사가 그것을 제지하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찬성측은 교내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서로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쉽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된다고 한다. 이와 달리 반대측은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기능이 저하되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수업시간에도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된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스마트폰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의견은 서로 달라 주장이 갈리지만,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한다. 적당하게 합의를 보기 위해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나중에도 주장과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에도 문제를 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학년 최아진 기자

수지초등학교도 학생이 적었을 때가 있었을까?

"옛날엔 주변이 다 들산이었지"...

사진과 인터뷰로 알아본 수지초의 변천사

수지초등학교는 오랜 역사 지닌 만큼 주변환경이 많이 변해왔다. 2013년에 수지초등학교의 모습과 지금의 수지초등학교의 모습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예전 수지초등학교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자.



▲ 2013년 수지초등학교의 모습(출처: 네이버지도 거리뷰 2013년 6월)



▲ 2025년 수지초등학교 모습(출처: 네이버 지도 거리뷰 2025년 2월)

우선 예전 4층 건물에서 6층 건물로 변화하였고, 강당과 급식실도 예전에 비해 많이 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 아파트(e편한세상 등)이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생수가 더 적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에 비해 많이 작았던 학교 건물, 아직 지어지지 않은 주변 아파트 등을 볼 때 과거에는 학생 수가 지금보다 더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정말 수지초에 학생수가 적었던 때는 언제일까? 정확한 년도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태영데시앙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여기서 오래 사신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여기가 옛날엔 아파트가 없고 들산이었다'고 말씀하셨다.

학생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으려 했지만, 너무 오랜 전의 자료라 그런지 확인할 수가 없어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측해보았다.

4학년 김지아 기자

수지초등학교 학생들은 스마트폰은 어디에서 끌까?



2026년 3월 1일부터 초·중·고 교

학교 지원 아니면

수업 시간 중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학생들 스마트폰 어디서 끄나 확인해 보았더니

2026년 3월 1일부터 초·중·고 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 기기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이 법과 관련하여 2026학년도 3월 우리 학교 대위원회에서도 '수업 중 지원된 물품이 아니면 사용을 금지하자'라는 의견이 새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대위원회란 각 4, 5, 6학년 학급 안에서 당선된 학급회장들이 전교 6학년 회장, 전교 부회장, 전교 5학년 부회장과 만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학교를 위해 만들 올바른 규칙이나 고쳐야 할 것을 토론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자는 수지초등학교의 1-6학년 중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반 수가 가장 많은 5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어디에서 종료하는지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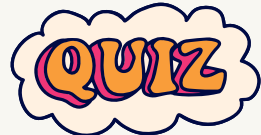
기자는 약 10명에게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스마트폰을 어디에서 끄나요?"라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정문에서 끄니다"가 3명, "교실 안에서 끄니다"가 1명,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습니다"는 2명, "교실 앞 복도나 계단에서 끄니다"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5학년 학생들은 대체로 교실 앞 복도나 계단에서 스마트 기기의 전원을 종료한다고 볼 수 있었다.

원래는 교문 앞에서 끄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기자도 평상시에 학교를 다닐 때 복도나 계단에서 스마트폰을 끄는 친구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복도나 계단에서 끄는 행동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법은 2026학년도 3월 대위원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이니 잘 지키는 것이 학생의 올바른 학교를 만들어가는 행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5학년 김소린 기자



년센스 퀴즈와 다른 그림 찾기

1. 진짜 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2. 도둑이 도둑질하러 가는 걸음걸이를 4자로 줄이면?
3. 서로 진짜라고 우기는 신은?
4. 라면은 라면인데 달콤한 라면은?
5. 차도가 없는 나라는?

*퀴즈 정답은 4쪽에

